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달에 있을 학교 축제 행사에서 우리 반은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주제로 발표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회에서 활용할 의상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패셔니스타 세 명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세시대 신(神) 중심의 사고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 인간의 몸 자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을 감싸는 의상이 예술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는 근대 시민의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고, 중세 시대의 지방 분권 체제가 절대적 권력을 지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강력한 통치 기반의 정립은 화려한 의상 문화의 부흥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캐서린 드 메디치>입니다. 캐서린은 당시의 이상적인 허리 치수인 13인치를 유지하기 위해 철제 코르셋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철제 코르셋이 빠른 속도로 상류 사회에 퍼졌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 또한 캐서린 덕분에 외출 시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귀족들의 중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다음 사진의 남성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입니다. 르네상스 남성복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헨리 8세는 이 그림에서 큰 소매가 달린 과장된 실루엣의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바지는 다리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얇은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한편, 이 사진의 여성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3천여 벌의 드레스와 80개의 가발을 소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는 허리를 강조한 코르셋과, 스커트를 풍만하게 키우는 지지대를 넣어 구축한 과시적인 실루엣의 드레스는 웅장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최근 영화의 한 장면인데, 프랑스 왕궁에서 열린 무도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들에 묘사된 패션이 충실히 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된 그림들에 비해 색감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품을 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에 대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 부분에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야지.
- ②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최근의 자료도 보여줘야지.
- ④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와 함께 참고한 서적들을 나열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내용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세밀하게 알려줘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

- 신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음. ①
- 지방 분권 체제를 벗어나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음. ②

[르네상스 시대의 패셔니스타들]

- <캐서린 드 메디치>는 귀족 사회에 코르셋과 가면의 유행을 일으킴. ③
- <헨리 8세>는 풍만한 상의와 얇은 하의를 착용하면서 당시 남성복의 전형을 제시하였음. ④
- <엘리자베스 1세>는 코르셋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몸을 강조하였음. 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효율적인 학습 여건 보장을 위해 3년 전부터 수준별 학급 편성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준별 학급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주시시오.

찬성1 : 학생들의 수준별로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학년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무관하게 편성된 학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업 수준을 중위권 학생들에게 맞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부의 중위권 학생에게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학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을 가진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준별로 구성된 학급에서는 각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업의 몰입도도 향상됩니다.

사회자 :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3 : 수준별로 학급을 구성할 때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수준별 학급 구성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시겠습니까?

찬성2 : 수준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의 성적 분포와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한 이후의 평균 성적 분포를 제시하겠습니다. 시행 전과 후, 총 4개 년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다소 적은 양이지만, 이에 따르면 성적 향상 경향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1 : 수준별 학급 편성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증가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최상위 수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위 수준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3 : 매 학기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재편성합니다. 상위 수준 학급으로 올라가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업의욕 저하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반대2 : 그러한 동기부여조차도 각 학급에서 성적이 높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대1'은 수준별 학급 편성의 구체적인 의의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방식은 그 의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중위권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준별 학급 편성에 찬성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현재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기존제도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④ '찬성1'은 수준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현재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 ⑤ '반대1'은 학생들의 성적이 서로에게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가 비논리적임을 지적하며 추가 근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기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주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기존 제도의 특징과 함께 언급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옹호한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측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반대3'은 수준별 학급을 구성함으로써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 ② '찬성3'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학급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겠군.
- ③ '찬성2'는 자신이 제시한 근거자료의 표본이 많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도의 효과는 강조하고 있군.
- ④ '찬성1'은 기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다수의 학생에게만 이득이 되는 구조였음을 지적하고 있군.
- ⑤ '반대2'는 '찬성3'의 주장이 모든 성적대의 학생들에게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 학급 학생들
- 주제 : 카오스 이론에 대한 설명과 그 한계 제시
- 글의 구성
 - 1문단 : 카오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제시해야겠어.
 - 2문단 : 카오스 이론의 정의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 3문단 : 카오스 이론이 가지는 가치를 살펴봐야겠어.
 - 4문단 : ㉠카오스 이론의 의미를 설명하되, 그 한계에 대해서도 제시해야겠어.

초고

‘카오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개 질서를 나타내는 ‘코스모스(cosmos)’와는 반대되는, 혼돈 또는 무질서라는 뜻으로 쓰인다. 과거, 카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나 구약성서 등에서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기 이전에 존재한 무형의 공허’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A] ‘카오스학(chaology)’은 18~19세기 신학에 보이는 용어로,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연구하는 분야다. 오늘날 카오스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널리 보편화된 용어가 되었다.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의 특성은 알기 쉽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맑을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한편, 온도, 태양에너지, 공기의 압력, 바람의 방향 및 속도, 강수량,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요소들 중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주기성이 있다’고 말한다. [B] 1년 중의 계절은 주기성을 띠지만 하루의 날씨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기성 없는 것들, 즉 규칙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카오스 이론이다.

규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기상현상, 바닷물의 복잡한 흐름, 헬리콥터나 비행기 날개 끝 공기의 불규칙한 변화, 담배연기의 무질서한 운동, 야생동물 수의 변동, 태양계 행성과 위성의 불규칙한 공전 궤도 등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런 무질서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돌연한 죽음의 원인 중 심장 움직임의 변화나 집시나방 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주식 가격의 변동 등도 수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 카오스의 등장으로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구름의 모양, 번개불의 이동 방향, 혈관의 미세한 구조 등 자연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과학의 이론들과 달리, [C] _____

6.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 [A]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카오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활용 사례를 알려줘야겠어.
- ㉡ 카오스의 최근 활용 양상에 대해 서술해야겠어.
- ㉢ 과거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카오스의 의미를 제시해야겠어.
- ㉤ 카오스의 어원과 함께 반의어를 제시하며 카오스의 의미를 설명해야겠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 [B]를 바탕으로, <보기>의 일기 예보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기 예보 : 이번 주에도 맑고 화창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은 20도, 최저기온은 11도의 분포로, 가을 날씨답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을 날씨의 일몰 시각이 점점 빨라지는 만큼 늦은 오후 야외활동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는 비구름이 포착됩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며 이후 일기예보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①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는 것은 카오스 이론을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요소이겠군.
- ② 비구름의 진로가 언제 정확히 바뀔지는 카오스 이론의 예측 대상이 될 수 없겠군.
- ③ 가을에 일교차가 큰 것은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군.
- ④ 가을의 일몰 시각의 변화는 주기성에 의한 규칙적인 변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음 주 초가 아니라 이번 주말에 비가 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군.

8.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카오스 이론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인 학문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②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학문 영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③ 카오스 이론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예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로 인해, 이것으로도 정확한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카오스 이론이 예측하는 것은 대부분 수학적인 예측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이론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이 많아서,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 ⑤ 카오스 이론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내게 닥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은 내 일이 아닌 듯 비현실적으로 느끼고만 있었다. 결국 시간은 ㉠시간 대로 흘러가고 일은 일대로 처리 못한 채, 혼자 불편해져만 갔다.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인 엄두, 그 엄두가 나질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엄두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를 앞잡아 보는 것 같아 아무 잘못 없는 그 단어에 약이 올랐다. '내가 설마 할 수 있겠어? 감히 내가 말아야'하며 포기를 ㉡부추기는 말로 느껴지는 건 정곡을 찔린 기분 탓인가 싶었다. 생각해보니 "엄두조차 안 난다"하는 식으로 그 단어 뒤에 따라붙는 말이 대개 ㉢부정에 형태였다. 마음이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이 마음을 만들기도 하나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당장 해내야 하는 일뿐 아니라 엄두조차 내지 못한 내 자신의 문제도 생각하게 됐다. 나를 설명하는 '엄두'라는 말의 꼬리를 잡고 어느새 나는 '어디 한번 해 볼까'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엄두를 ㉣시작한 것이다.

무거운 쇠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배는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이역만리를 오간다. 멀쩡하던 여름 하늘에서 서럽게 소낙비가 쏟아지고, 겨울 하늘에선 탄성 같은 함박눈이 내린다.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달을 ㉤정복한다. 또, 우주 정거장을 지었다.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나 싶어 웃음이 나왔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없다. 나는 그렇게 감히 무엇을 해보려는 그 마음을 먹었다.

9.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글을 작성하면서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닥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연민을 품었다.
- ② 단어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단어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고민했다.
- ③ 생각을 거듭하면서 닥친 일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문제도 돌아보게 되었다.
- ④ 비행기와 배를 떠올리자,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의 도전정신이 느껴졌다.
- ⑤ '엄두' 뒤에 붙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시간대로'로 고쳐야겠어.
- ② ㉡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부추키는'으로 고쳐야겠어.
- ③ ㉢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부정의'로 고쳐야겠어.
- ④ ㉣ : 목적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나기'를 첨가해야겠어.
- ⑤ ㉤ : 시제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정복했다'로 고쳐야겠어.

1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말의 문장 표현 중에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있는데, 이 두 표현은 주로 어근에 접미사를 결합해서 쓰인다. 이때 이들을 각각 사동사, 피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동사의 경우엔 사동 접미사(-이, -히, -리, -기, -우, -구, -추), 피동사의 경우는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를 쓰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① ㉠ : 아버지가 사우나에서 몸을 녹였다.
㉡ : 용우가 물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 ② ㉠ :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덮였다.
㉡ : 엄마가 아들에게 옷을 입혔다.
- ③ ㉠ : 그들은 무책임한 그에게 질려 버렸다.
㉡ : 국민은 그녀에게 나랏일을 맡겼다.
- ④ ㉠ : 참새가 배고픈 뱀에게 먹혔다.
㉡ : 밤을 새서 그는 자꾸 눈이 감겼다.
- ⑤ ㉠ : 화가 난 용우가 민지를 올렸다.
㉡ : 그가 일을 끝내고 나오자 마음이 놓였다.

12.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발이 → [바치], 밭이 → [미치]
㉡ 앞마당 → [암마당], 단는 → [단는]
㉢ 직행+열차 → [지깁닐차], 늑막+염 → [늑망념]
㉣ 앉고 → [안꼬], 삶고 → [삼:꼬]
㉤ 당아서 → [다아서], 놓아 → [노아]

- ① ㉠, ㉡ : '칼날[칼랄]'에서처럼 음운 환경에 따라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 : '젓멍울[전멍울]'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에 영향을 받아 조음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 '홀+이불[훈니불]'에서처럼 두 형태소가 합쳐질 때, 특정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④ ㉣ : '굵고[글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⑤ ㉤, ㉥ : '놓다[노타]'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13.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내 태자(太子)를 <u>섬기</u> 스보되 (현대어 풀이 : 내가 태자를 섬기옵되)	〈석보상절〉
(나) 세존(世尊)이 상두산(象頭山)에 <u>가샤</u> (현대어 풀이 : 부처님이 상두산에 가지어)	〈석보상절〉
(다) 이 엇딘 광명(光明)고 (현대어 풀이 : 이것이 어떤 광명인가?)	〈월인석보〉
(라) <u>야수</u> (耶輸)스 알피 가 서니 (현대어 풀이 : 야수의 앞에 가 서니)	〈월인석보〉
(마) 수비 니겨 날로 <u>뽀메</u> 便團安한키 호고저 (현대어 풀이 : 쉽게 익혀 날로 씹에 편안케 하고자) 〈훈민정음언해〉	

- ① (가)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다.
 ② (나)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다.
 ③ (다) : 설명 의문문의 '고'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④ (라) :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⑤ (마) : '쁘다'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를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어떤 경우에는 각 형태소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본래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는 것인데, 한글 맞춤법은 이 원칙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가령, '나무, 아들,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의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용언의 활용형에서도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는(살+는), 사시오(살+시오)에서는 표기를 '살는', '살시오'로 적지 않고, 표기를 발음이 나는 대로 적고 있다. 즉 이른바 'ㄹ 탈락' 현상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복합어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다달이(달+달이), 부삽(불+삽)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글 맞춤법에 의해 소리대로 표기된다는 것은 표기가 음운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표기가 소리를 쫓아 간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먹다'의 어간 '먹-'은 뒤에 오는 형태소에 따라서 머근(먹+은), 먹꼬(먹+고), 멍는(먹+는)처럼 다양하

게 발음될 수 있다. 이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표기에 음운 현상이 반영되지 않도록 본래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형태소의 원래 생김새를 밝혀주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먹다'의 활용형의 경우, 본래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먹은, 먹고, 먹는다'로 표기하게 된다.

14. 윗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파생어	합성어
㉠을 만족시킨 경우	㉡	㉢
㉣을 만족시킨 경우	㉤	꽃잎, 꿀주리다

- ① ㉡ : 믿음, 마개
 ② ㉡ : 밝기, 무덤
 ③ ㉢ : 삶, 헛웃음
 ④ ㉢ : 화살, 우짚다
 ⑤ ㉤ : 많이, 날아가다

15.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 사실을 듣고 기뻐서 아버지께 편지를 <u>썼다</u> .	
㉡ 그렇게 살아서 밤 좀 먹고 <u>사니</u> ?	
㉢ 저기 소금을 퍼서 갖다놓고 김치를 <u>담가</u> .	
㉣ 아기를 <u>낳은</u> 내가 나보다 <u>나아</u> .	
㉤ TV토론을 <u>보고</u>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u>봐</u> .	

- ① ㉠ : '기뻐서'와 '썼다'의 음운 변동 현상을 표기에 반영했으니 소리대로 적은 것이 되겠군.
 ② ㉡ : '살아서'와 '사니'는 모두 '살다'의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지만, 서로 다른 한글맞춤법 표기 원칙을 적용했군.
 ③ ㉢ : '퍼서'와 '담가'의 표기는 발음을 예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④ ㉣ : '낳은'과 '나아'는 모두 표기가 소리를 쫓아갔다고 할 수 있겠군.
 ⑤ ㉤ : '보고'와 '봐' 두 표기에서 용언의 어간의 본래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 것은 '보고'가 되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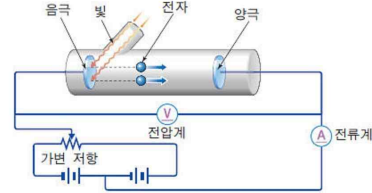
1873년 맥스웰은 진동하는 전자기장은 하나의 파동을 발생시킨다고 예측하였고 이 파동을 전자기파라 ㉔부르고 그 성질을 예언하였다. 그는 전자기 이론에 의해 계산된 전자기파의 속도가 진공 중의 빛의 속도와 일치하며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과 같은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1885년 독일의 하인리히 헤르츠는 처음으로 이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함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그는 실험을 계속 발전시켜 수행하면서 자외선을 금속의 표면에 조사하면 전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의 여러 실험에서 이렇게 발생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조사하는 빛의 파장이 짧은 것일수록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전자의 발생 수는 조사*한 빛의 에너지에는 관계가 없고 그 빛의 강도, 즉 밝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전자가 금속의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데 필요한 빛의 최소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최소의 에너지는 금속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최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아주면 그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㉕이 내용은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맥스웰의 이론에 따르면 빛의 강도가 높으면 더 많은 전자가 나와야 하고, 또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빛을 오랫동안 흡수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하므로 빛을 비춘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광전효과의 실험에서는 ㉖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임계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비추면 즉시 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아인슈타인은 ㉗이것을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해결하였다. 그는 $hf = \frac{1}{2}mv^2 + W$ 라는 간단한 식으로 광전효과를 설명했다. 여기서 h 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며 고정된 값을 가지고 f 는 비추는 빛의 주파수를 가리킨다. 또한 플랑크 상수와 빛의 주파수의 곱은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m 은 발생하는 전자의 질량이고 v 는 그 전자의 튀어나오는 속도이다.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위의 식은 에너지의 보존법칙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즉, 등호의 좌변인 hf 는 입사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이고, 우변의 첫 항은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다. 여기서 h 와 m 은 플랑크 상수와 전자의 질량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값이며, f 는 비추는 빛의 주파수로 역시 실험 시 사용하는 빛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이다. 아인슈타인은 단지 전자의 속도와 W 만이 모르는 값이며 실험을 통해 이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임계 파장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금속판에 비추었다고 생각해보자.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전자는 (-)극을 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에 의해 (+)전극으로 이끌려간다. ㉘이렇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 전류

가 흐른다고 말한다. 전류가 처음으로 흐를 때의 빛의 파장을 재면 그때 튀어나온 전자는 운동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v=0$ 으로 $hf=W$ 가 되어 W 의 값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그림 1>에서 '빛'은 음극을 이루는 금속판에 비치는 광선이고 '전자'들은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다.

또한 만약 주파수가 더 높은 빛을 비추게 되면, 발생한 전자들은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 운동하게 된다. 이때 순간적으로 전극을 서로 맞바꾸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최소의 전압을 측정했을 때 ㉙그 전압이 V 였다고 한다면 $eV = \frac{1}{2}mv^2$ 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e 는 전자의 전하량으로 알고 있는 물리상수이다. 또 이때에 같은 주파수의 빛의 양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증가하지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전압 V 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여 아인슈타인은 헤르츠와 그 외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광전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빛의 입자설은 호이겐스가 제시한 빛의 회절효과 등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호이겐스 이후 빛은 파동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빛의 파동설은 광전효과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계는 빛은 입자설과 파동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혼란에 빠졌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빛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된 전자기파라는 가정을 통해 광전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아인슈타인 이후 과학자들은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 전자기파로 굳게 믿어 왔고 이는 현대에도 여전히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 조사 : 빛 따위를 쬌어 줌.

* 임계 파장 : 빛을 어떤 금속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파장.

16. 윷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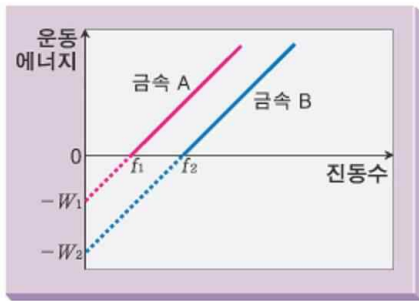
- ① 빛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한 이론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이론을 반증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빛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된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여 주장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계 파장의 빛을 비추다 강도를 증가시키면 전류는 증가하지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전압 V 에는 변화가 없다.
- ② 음극의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파장이 클수록 빛의 주파수는 작아진다.
- ③ 맥스웰은 전자기 이론을 통해 처음으로 전자기파가 존재함을 예측하였지만 광전효과를 설명하지 못했다.
- ④ 일함수보다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를 금속에 쏘아주면 항상 전류가 흐른다.
- ⑤ 맥스웰의 이론에 따르면 일함수는 금속판을 이루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임계 파장보다 긴 파장을 가진 빛의 세기가 세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실험 A - 금속 A / 실험 B - 금속 B)

위의 그래프는 두 가지 금속 A, B를 가지고 비추어 주는 빛의 진동수(주파수)를 0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폭으로 증가시키며 각각 광전효과 실험을 한 결과이다. 두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금속판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였으며, f_2 는 f_1 의 2배로 측정되었다.

- ① 금속 B의 일함수는 금속 A의 일함수의 2배이다.
- ② 실험 A에서 f_1 의 진동수로 입사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W_1 과 같다.
- ③ 두 실험에서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발생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일함수의 합과 같다.
- ④ f_2 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실험 A와 실험 B에서 모두 전류가 흐른다.
- ⑤ f_2 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최소의 전압은 실험 A와 실험 B가 동일하다.

19.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함수보다 에너지가 작은 빛은 빛의 강도와 관계없이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
- ② ㉡: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 나오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고 후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자가 나올 수 있다.
- ③ ㉢: 전자가 금속의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비추면 즉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 ④ ㉣: 음극을 떠는 전자가 전기적 성질에 의해 양극으로 끌려가는 것.
- ⑤ ㉤: 일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발생하는 전자 중 운동에너지가 0인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압.

20. 문맥상 ㉢과 바뀌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립(停立)하고 ② 지칭(指稱)하고 ③ 지명(指名)하고
- ④ 주파(走破)하고 ⑤ 호가(呼價)하고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발생설이란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오늘날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론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자연발생설은 확실히 민달팽이, 개구리, 쥐, 날벌레 등과 같이 서식지가 눈에 잘 띄지 않아 갑자기 출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물들의 존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 자연발생설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상식'의 지위를 누렸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부정되었다.

자연발생설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헌 가운데 오래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다.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벼룩, 구더기, 새우, 장어와 같은 각각의 생명체들이 저마다 출몰하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생명의 배(胚, germ)'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주변 환경의 물질을 조직하여 생명체가 된다는 설명이었다. 예컨대 벼룩의 '배'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다가 먼지와 결합하여 벼룩이 되는 식이다. 이는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기론(生氣論)*적 사고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17세기 이후부터는 자연발생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비판은 주로 실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1665년 프란치스코 레디는 병 두 개에 각각 생선을 넣은 뒤 한 쪽 병은 방치하고, 한 쪽 병은 거즈로 주둥이를 막은 뒤 날벌레가 꼬이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주둥이를 막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고 그렇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실험은 과학에서 기본적인 대조의 개념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레디의 실험은 오직 날벌레가 자연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발생론 전체를 부정하는 데가

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1675년에 레이우엔훅이 미생물을 발견함에 따라 자연발생설은 다시 지지를 받게 된다. 장소 제약 없이 쉽게 번식하는 미생물은 자연발생설의 강력한 근거로 여겨졌다. 그러다 18세기에 이르러 미생물의 자연발생을 부정하기 위한 실험이 행해진다. 생물학자 스팔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를 용접하여 ④밀폐한 뒤 유기 물질이 부패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유기 물질의 부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스팔란차니는 미생물이 없는 유기 물질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곧이어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이 플라스크 속에 생명체의 발생에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서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함으로써 자연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반박에 가로막혀 자연발생설이 최후를 맞는 데에는 결국 한 세기가 더 필요했다. 이에 파스퇴르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공기와 함께 부유하는 먼지를 타고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①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한 쪽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옆으로 누인 S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기는 통과되, 먼지를 타고 이동하는 미생물의 침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고기국물을 양쪽 플라스크에 채운 뒤 충분히 가열하여 멸균한 다음, 플라스크의 목을 막지 않고 그대로 ②방치했다. 시간이 지난 뒤 관찰한 결과, 처음 상태로 곧은 목을 가진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는 미생물이 번식한 반면, 목을 잡아 늘려 변형시킨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서는 미생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파스퇴르는 이것이 가열 과정에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부러진 목에 맺힌 물방울들이 공기 중의 먼지를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가열하지 않은 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설득력 있는 자연발생설 부정 실험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다.

* 생기론 : 생명 현상의 발현은 비물질적인 생명력 또는, 자연법칙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이론.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명체들은 모두 우연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레디의 실험 결과 날벌레는 부모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 ③ 레이우엔훅의 실험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성공했다.
- ④ 파스퇴르는 실험에서 고온의 수증기로 미생물을 차단하였다.
- ⑤ 생명 현상의 발현이 비물질적인 생명력에 지배된다는 이론은 현대 자연과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기국물을 다른 유기 물질로 바꾸고 파스퇴르의 실험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는데 양쪽 플라스크 모두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면 파스퇴르의 가설은 약화된다.
- ② 레디의 실험에서, 만약 두 병 모두 생선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레디의 가설은 약화되지 않는다.

- ③ 스팔란차니의 실험에서, 유기물질을 가열한 뒤 플라스크에 공기를 주입했는데도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았다면 스팔란차니의 가설은 강화된다.
- ④ 스팔란차니의 실험 이후, 유기물질을 부패하게 만들지 않는 미생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스팔란차니의 가설은 약화된 다.
- ⑤ 레디의 실험에서, 주둥이를 막는 데에 사용된 거즈의 색상이 날벌레가 기피하는 색상으로 밝혀진다면 레디의 가설은 약화된 다.

23. <보기>는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레디	스팔란차니	파스퇴르
대조군	방치한 병	방치한 플라스크	곧은 목 플라스크
실험군	거즈로 막은 병	㉠	㉡
공기 차단 여부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① 밀폐한 플라스크 | 곧은 목 플라스크 | 그렇다 | 아니다 |
| ② 방치한 플라스크 | 곧은 목 플라스크 | 아니다 | 그렇다 |
| ③ 방치한 플라스크 | 백조목 플라스크 | 그렇다 | 아니다 |
| ④ 밀폐한 플라스크 | 백조목 플라스크 | 아니다 | 아니다 |
| ⑤ 밀폐한 플라스크 | 백조목 플라스크 | 그렇다 | 아니다 |

24. 윗글로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곧은 목을 가진 플라스크에는 미생물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 ② 가열한 플라스크에 용접하여 밀폐하게 되면 미생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 ③ 스팔란차니의 플라스크 실험에서의 대전제인 멸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 ④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기가 없어서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 ⑤ 미생물은 특정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가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5. 윗글의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여 이미 확정하거나 인정한 설.
- ② ㉡ :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 ③ ㉢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 ⑤ ㉣ :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내버려 둠.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남시 분당구의 구청은 분당구 내에 위치한 사업가 김 씨 소유의 건물을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건축법에 근거하여 김 씨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분당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건물의 붕괴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김 씨의 견해가 옳고, 분당구청의 판단이 틀렸다면 철거명령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잘못된 명령일 수 있다. 그러면 김 씨는 자신의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행정의 주체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公定力)'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공정력이 인정되면 어떠한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행위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분당구청이라는 행정의 주체가 건축법을 집행하면서 철거명령이라는 형식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였으므로 철거명령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철거명령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동된 이상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김 씨가 건물이 철거되는 사태를 피하려면 철거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명령이 공식적으로 취소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쟁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를 무시한다면 법 집행의 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물론 법적 안정성을 지키느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문제는 앞서 소개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별도의 구제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면서도 명백하다면 해당 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었으므로 공정력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받으려면 권한 있는 기관들을 거쳐야 하므로, 결국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구제 수단은 앞선 경우와 같다.

한편 공정력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례에서 김 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철거로 인해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철거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철거명령은 직권취소나 쟁송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정력이 유지된다. 이때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자의적으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다수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닌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정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 수소법원 : 소송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6.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들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② 주제를 제시한 후, 유사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를 제시한 후, 관련 개념들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며 논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론들을 고려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27.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주체는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력이 인정되는 한 행정행위를 집행할 수 있다.
- ②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행정행위의 쟁송취소가 일어나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④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의 효과는 같으나, 직권 취소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없이 행정주체의 의사만으로 실현 가능한 반면, 쟁송 취소는 행정주체 이외의 당사자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 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경우엔 공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

28.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다.
- ② 사례에서 분당구청이 철거명령을 직권취소했다면 김 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③ 사례에서 김 씨가 보기에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④ 사례에서 김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김 씨가 전부 승소하더라도 해당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유지될 것이다.
- ⑤ 사례에서 김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김 씨가 패소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될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구청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갑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을 내렸다. 철거명령을 수용할 수 없었던 갑은 다수의 건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A구청을 방문하여 A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 또는 (나) 또는 (다)의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자.

- (가) A구청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취소 사실을 알리고, 갑에게 사과 전화를 하였다.
 (나) 며칠이 지나도 A구청 건축과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갑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소를 제기하기 전에 A구청이 대집행으로 갑의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에 갑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가)의 경우, 직권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거명령은 유효하다.
 ② (나)의 경우, 갑은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나)의 경우, 갑이 승소한다면 철거명령의 효력은 제거될 것이다.
 ④ (다)의 경우, 갑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철거명령의 효력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⑤ (다)의 경우, 갑이 패소한다면 철거명령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거부할
 ② ㉡: 지속된다
 ③ ㉢: 담보하기
 ④ ㉣: 추정되는데
 ⑤ ㉤: 수령하여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傳)은 중국에서 형성된 인물의 선행과 미덕을 담은 문학 장르이다. 대체로 '인정기술(人定記述)－인물의 행적－작자의 논찬(論贊)'의 3단으로 구성된다. 인정기술에서는 가계·신분·성명·거주지 등 입전(入傳)인물의 인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행적에서는 일화를 들어 인물의 선행과 미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논찬에서는 작자가 입전인물의 삶을 비평한다.

전통적으로 전은 사관(史官)이 공식적인 역사서에 기록한 인물의 전기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인물을 염려하여 이를 보존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입전 대상은 당대 사회가 지키고자 했던 이념과 규범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이를 적극 실천하여 역사적으로 기릴 만한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사관이 인물을 입전하는 것은 물론 문인이나 학자가 사사로이 특별한 인물의 전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 영웅·위인·충신·열사뿐만 아니라 거지·농민·기생·상인·사기꾼 등 당대의 시정 공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부 작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입전인물을 다루면서 삶의 진면목을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실을 다소 윤색하거나 허구적인 상상력을 개입하여 서사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옥은 하층민을 입전인물로 삼아 그들에 의해 윤리와 도덕이 지켜지는 모습을 통해 양반 사대부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한편 몰락사대부의 의식구조를 통해 타락한 양반들과 사회체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의 변화는 '전(傳)계 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전계 소설'이란 전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지만 전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는 작품들을 일컫는다.

수많은 고전소설이 전의 형식을 따르는 전계 소설에 해당되며, 현대소설에서도 일화를 통해 인물의 개성을 나타내는 전의 서술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전계 소설이 많다. 특히, 이문구는 전양식을 변용하여 소설의 핵심적 서사 전략으로 활용하는, 즉 전계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문구 전계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은 대부분 노동자나 농민 등 신분적으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이들이다.

(나)

그 사람은 내가 일생을 살며 추모해도 다하지 못할 만큼 나이를 얻어 살수록 못내 그림기만 했다. 그의 이름은 **신현석(申賢石)**, 향년 37세였고, 살아 있다면 올해 마흔 여덟이 될 터였다. ㉠이름에 돌 석자가 들어 그랬던지 그는 살아생전에 유난히 돌을 좋아했거나, 돌이켜 따져 보면 그 자신이 천생 돌과 같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모두들 그를 석공(石公)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를 즐겨하였고 본인도 그런 명칭을 마다하지 않았던 줄 안다. 나는 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런 대로 석공을 추억하고 아쉬워하던 끝이면 흔히 돌의 뒤편이와 성질을 더불어 되새기게 되곤 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돌의 성질이란 곧 석공이란 별명을 가졌던 그 인간의 성질과 거의 같은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돌은 천년을 값없이 내버려져 있다가도 문득 필요한 자에게 쓸모가 보이면서 비로소 석재(石材)라는 허울을 얻으며 가치가 주어진다.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한 돌은 만년을 묵어도 골동이 될 리 없으며 어떤 품목에 끼어들 명분도 없다. 그렇듯 돌은 용모가 곧 쓸모이되 장중한 바위로부터 간지러운 자갈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성질만은 매한가지로 같다. 더위에 늘어짐이 없고 장마에 젖으나 물러지지 않으며 추위에 움츠러 들지 않고 바람에 뒹굴지 언정 가버리 날아가지 않는다. 가버워지거나 무거워지지 않고 망치로 얻어맞아 깨지긴 해도 일그러지거나 무뎠해지지 않는다. 옛 글에도 “**丹可磨 而不可奪其赤 石可破 而不可奪其堅**……단사(丹沙)를 갈더라도 그 붉은 빛은 빼앗을 수 없고, 돌을 깨뜨려도 그 굳음은 빼앗을 수 없다”고 일렀음을 알고 있다.

(중략)

석공은 신서방의 4남 5녀 가운데서 맏아들이었다. 그가 돌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던 것인지는 어림되지 않지만, 돌에 대해 유난히 깊은 애정을 품은 듯했고, 완상하는 여유도 지니고 있었던가 보았다. 나는 석공의 그런 일면을 요즘 **배부른 사람들**의 수석 취미에 견주어 본 일은 없다. 차창 탐색가니 수석연구가니 하면서 체중 줄이기 운동 삼아, 또는 신경성 소화불량 치료제

로 돌아다니며 ㉔정원 장식용 정석(定石) 장사에 뜻을 둔 그 사람들의 구차스러움에 비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 물형석(物形石)이니 산수경석(山水景石)이니 추상석(抽象石), 문양석(紋樣石) 하고 가르며, ‘창세기’, ‘환호(幻湖)’, ‘천녀(天女)’ 어찌고 하는 갈잡은 제목으로 장난질을 하지만 석공은 그런 놀이 할 만큼 돈이나 여가가 없었고, 그런 제목을 꾸며낼 뿐수로 유식하지도 않았었다.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였으니까. 구태여 시체에 맞춰 석공에게 이름을 주자면 석재 수집가라고나 할는지 그는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일상에 쓸모 있는 돌들로만 모았던 것이며, 남의 집 아궁이 불뚝이나 방고래를 놓는 데에, 더러는 이웃에서 굴뚝이나 담장을 쌓든가 장독대를 늘리는 데에 기꺼이 나눠주곤 하였다. ㉕지금 생각이지만 그는 쓸모 있을 성부는 돌은 무조건 모아왔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돌쟁이(石公)가 됐던 것 같았다.

- 이문구, 「관춘수필」 -

(다)

유광역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그는 시를 어느 정도 지을 줄 알았으며 과체(科體)*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다.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그의 신분은 낮았다.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가던 자가 많았다. 광역도 대신 글을 써 주는 재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㉖광역이 일찍이 영남의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광역을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후 광역은 붉은 대문이 몇 겹이며, 으리으리한 건물이 수십 채나 들어선 집에 도착했다. 집 안에는 얼굴이 해말썽하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필경사*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고 광역이 글을 쓰면 그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안채에 광역의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진수성찬을 마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왔다. 광역을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모시듯 하였다.

이윽고 회시(會試)*를 치렀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유광역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그런 후 주인이 행장을 차려 광역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㉗광역은 말 한 필, 중 한 놋을 거느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광역이 집에 돌아와 보니 광역의 재주를 빌리려고 어떤 사람이 돈 2만 냥을 가지고 왔고, 광역이 진 환자(選子) 빛은 감사에게 이미 갚은 터였다.

㉘광역의 글은 격이 별로 높지 않으나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이는 과거 답안에 잘 맞아떨어졌다. 광역은 이미 늙었는데도 그의 글은 더욱 나라에 소문이 났다.

경시관(京試官)*이 경상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영남에서는 글재주로 본다면 누가 으뜸입니까?”

감사가 말했다.

“유광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경시관이 말했다.

“이번 과거에 내가 그를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감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㉙마침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광역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경시관이 이육고 과장(科場)에 나와 시제(詩題)를 내걸었다. 시제는 ‘10월에 중구회를 여니,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하노라.’였다. 조금 있다가 과장의 답안을 제출하는 곳에 답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글에

중앙절 놀이가 시월에 펼쳐지니,

북쪽에서 온 손님 남쪽의 테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라고 적혀 있었다.

경시관이 ‘이것은 광역의 솜씨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붉은 빛갈의 먹으로 평점을 마구 찍어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험 답안은 자못 작법에 합치되므로 2등으로 하였고, 또 하나의 답안을 3등으로 삼았다. 나중에 모두 걸봉을 떼어 보니 광역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㉚이에 경시관이 물래 조사해 보니, 모두 광역이 남에게 돈을 받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 나게 한 것이었다.

경시관이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였다. 그래서 광역이 죄를 범한 사실을 증거로 얻기 위해 합천군에 공문서를 보내어 광역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시관은 실제 광역을 옥에 가둬 조사할 생각은 없었다.

광역은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거 시험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잡혀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실컷 술을 마시고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㉛경시관이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끼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가는 털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는가? ㉜법전에는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 과체(科體):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사용하던 문체.

* 향시(鄕試): 지방 각 도에서 유생(儒生)에게 실시하던 초시(初試).

* 필경사: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회시(會試):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두 번째로 보던 과거.

* 경시관(京試官): 3년마다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하던 시험관.

* 매화외사(梅花外史): 작가인 이육의 별호(別號)

- 이육, 「유광역전」 -

31. (가)의 ‘전(傳)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계 소설은 전의 전통 위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소설의 성격은 미미했다.
- ② 조선 후기에 발달하여 전의 본래 성격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③ 문인이나 학자가 기록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 ④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입전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 ⑤ 고전소설에서는 전계 소설보다는 주로 전통적인 전 양식이 많이 사용되었고, 현대소설에서는 전계 소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32.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의 인물은 충신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의 입전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② (나)에서 '돌 나눠주기'와 (다)에서 '대신 글 써주기'는 전의 형식상 인정 기술에 속할 것이다.
- ③ (나)의 '배부른 사람들'은 (다)의 '몇몇 선비들'과 달리 서술자에게 비판적인 대상이다.
- ④ (나)는 (다)와 달리 남을 배려하는 인물의 따뜻한 심성에 주목하여 입전인물의 선행과 미덕을 기술하고 있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논찬을 마련하여 인물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다.

33. <보기> 중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ㄱ. 유사한 사건을 나열하여 서술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ㄴ. 작가나 서술자가 인용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서술자가 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여 인물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ㄹ. 작가나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특정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 ㅁ.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어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ㄹ, ㅁ

34. <보기>는 (나)를 대상으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학생들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관촌수필」은 여덟 편의 소설을 연작의 형태로 묶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후기에서 저자는 “이 책 속에는 실화를 그대로 필기한 「화무십일」 같은 것도 있고, 「여요주서」, 「월곡후야」처럼 지금도 그 자리에 살고 있는 동창생이나 친척의 이야기도 있으며, 후제 내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읽히기 위해 소설이니 문학이니를 떠나 눈물지어 가며 쓴 고인에 대한 추도문 「공산토월」 같은 글도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나)를 고인이 된 ‘신현석’ 씨에 대한 추도문이라고 한다면, 고인의 평소 성품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나) 뒤에 이어질 비문(碑文)을 만들어 볼까요?

_____ [A] _____, 여기에 잠들다.

- ①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돌들의 가치를 잘 알아보았던 수석 심미안이 뛰어난 사람
- ② 일상의 쓸모에 따라 돌이 달리 쓰이듯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

- ③ 장중한 바위가 깨지고 부서져 간지러운 자갈이 되듯이 세월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했던 사람
- ④ 쓸모에 따라 돌을 기꺼이 나눠주었듯이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온정을 베풀었던 사람
- ⑤ 돌의 타고난 굳은 성질이 변하지 않듯이 매사에 위기가 닥쳐와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35. (다)의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광역을 부인들이 타는 수레에 태워 맞이한 것은 그만큼 광역이 가진 재주가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 광역이 그가 가진 글 재주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광역의 부정적 면모가 부각되는군.
- ③ ㉢: 경상 감사는 경시관이 유광역의 글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군.
- ④ ㉣: 경시관이 결과적으로 유광역의 글을 뽑은 것을 통해 그가 글을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경시관은 광역의 부정(不正)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이 행한 과도한 행정집행을 자책하고 있군.

36. <보기>를 참고할 때, (나)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통적인 전(傳) 양식은 삼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입전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서술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유광역전」은 서술자가 작품에서 종종 자신을 드러내어 부정적 인물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작가를 직접 등장시켜 인물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직접 논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관촌수필」은 ‘나’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물의 모습을 회상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형식 속에, 과거에 사건을 경험했던 상대적으로 ‘어린 나’와 이를 기억하고 진술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서술자’가 구별되어 나타난다. 현재 서술자는 ‘어린 나’가 깨닫지 못했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 ① ㉦: ‘나’가 든 서술자가 ‘신현석’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서술자는 ‘요즈음 사람들’의 ‘구차스러움’과 ‘신현석’의 석재수집을 대조하면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어린 나’의 서술로, ‘신현석’이 쓸모 있는 것 같은 돌을 모아놨다가 나눠줬던 상황을 서술하고 있군.
- ④ ㉩: 서술자는 광역의 글재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을 변형하고 있다.
- ⑤ ㉪: 작가가 자신을 드러내며 글을 사고 파는 행위를 천박한 매물로 직접 평가하고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땀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뽕 두 뽕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밝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나)

공주 (격하게, 발작적으로 격해지는가하면 갑자기 풀이 죽고 하는 식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장군을 뵈오면서, 아니 이 집이라는 말을 들은 그 찰나에 내 머릿속의 무엇인가가 어긋나 버렸어요. 무엇일까요?

대사 집착을 버리십시오.

공주 집착?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집착할 수도 없지 않아요? 생기와 꿈이 어긋난 것일까? 무엇이 내 안팎에서 틀려버린 것일까? 그때 이 마당에서 내가 느끼던 그 짜증스러움, 내가 살아오던 세월이 뱃멀미처럼 곤두서면서 나는 평양성의 시간을 토해버렸어요. 그 뒤에 남은 어질머리를, 어질머리를 달래느라구 나는 발버둥쳤지요. 정신을 수습하려는, 뱃손님처럼. 그런데도 지금도 (이마에 손을 얹는다) 나는 어지러워요. 이 마당. 저 울타리. 저 산봉우리들. 초겨울의 이 무렵. 내가 살던 집이에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토록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것이 이상스러워요.

대사 공주님, 우리가 없어도 강산은 있고, 우리가 없어도 세월은 있습니다.

공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세월과 내가 함께 있는 동안만은 나는 이 어질머리에 서 풀려나고 싶어요.

대사 그래서 노부인과 사시러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공주 (갑자기 누그러지며) 그래요.

대사 그리고 공주님께서는 궁에 계시서는 안 됩니다.

공주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죽지 부러진 새라고 업수이 여기는 것이 꽤썸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사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주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장군이 돌아가시자 손바닥 뒤집듯 돌아서는 것들이 미워서

대사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공주 그런데 나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대사 네?

공주 장군께서 꼭 돌아오실 것만 같아요. 집에서는 꼬박 밤을 새웠어요.

대사 한 달밖에 안됐으니 그러시겠지요.

공주 한 달? 어제 같아요. 이렇게 와 보니, 여기서 살던 세월이 어제 같구요. 십년 전에 이 마당에 들어서던 일이 어제 같구요. 대사님, 마음은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바람이 몰아쳐 갔는데 왜 마음은 꼭 어제 같습니까?

대사 (거린다)

공주 어째서 이럴까요?

대사 공주는 잊어버림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공주 잊어버림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대사 네?

공주 어머님께 장군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대사 그것이 어렵군요.

공주 나의 참마음 같아서는 영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시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대사 방법은 있습니다.

공주 무슨?

대사 공주께서 제 암자에 거처하시면서 가끔 여기와 머무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저는 옛날처럼, 장군이 계시던 시절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지, 번번이 저 혼자만 나타나면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사 그러니……

공주 아무튼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은 없는 몸이니, 양단간에 정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대사 얼마동안은 괜찮으리다. 장군께서 싸움터에 계시는 동안 다니러 오셨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싸움터에…… (슬픈 웃음)

대사 장군께서도 공주님이 노부인과 사시기로 한 일을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공주 (끄덕인다) 저한테 당부하시던걸요.

대사 평소에 걱정을 하셨겠지요.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셨으니

공주 어머님께서 평양에 오시기를 한사코 마다하셨지요. 나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생소한 곳에서 부대끼실 것도 그렇고 여기 계시게 한 것입니다.

(중략)

대사 왕자는 늘 온달장군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주 그래서 내 남편을 죽이도록 놓아두었습니까? (격한 투로, 점점 흥분하면서) 그 사람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태를 그릇 판단했는지. 나는 왕자가 가장 나쁜 비극은 피하도록 힘을 쓰는 줄로 알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내손에 힘이 있었을 때 화군을 뿌리째 뽑아야 하는 것을. 힘도, 용기도, 지혜도 없는 사람을, 허깨비 같은 사람을 어렵듯이 믿고 있다가 하늘같은 남편을 잃을 줄이야. 반역자들은 처단하라는 내

호소를, 그 사람은, 종시 믿어 주지 않더군요.

대사 어전 회의에서 말이지요?

공주 (끄덕인다)

대사 무어라 하시던가요?

공주 무슨 말이라도 한다면 시원하지 않겠어요?

대사 ……

공주 아무것도 없는 빈 얼굴, 빈 마음, 그래도, 임금의 자리는 마다 않을 테지요?

대사 공주께서 무사히 여기 오시게 애쓰신 것도 왕자님이십니다.

공주 무사히?

대사 황궁합니다.

공주 살인자들

대사 고정하십시오. 효도를 하실려면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공주 (쓸쓸하게 웃는다) 조용히? 조용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지요? 십년 전 이 마당에 들어설 때도 나는 조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내가 이 집에 머문 것이 잘못인가? 내가 그 대로 지나치기만 했어도 이 집 주인은 아직 여기 있을 것을…… 내가…… 내가 나뻐있곤. 그러나 그때, 나를 사로잡은 그 이상한 설레임…… 그 속에 이 모든 불행이 깃들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 몸은, 이 몸은 장군의 큰 재앙이었는가? (비통한 음성)

대사 공주님, 아닙니다. 고정하십시오. 공주님의 비통한 마음을 풀어드릴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지요.

공주 말해주오, 진실을. 이 가슴에 화살 같은 못을 박는 말이라도 좋소. 진실을 말해주시오

대사 그때 공주님께서 말로만 들던 온달장군이 생시의 사람인 것을 보시고 놀라신 것이지요?

공주 놀랐느냐구요? (고개를 젓는다) 놀랐느냐구요? (고개를 젓는다) 달라요. 그렇게 말해 버리면 쉽겠지요. 그러나 달라요. 아직도 잡히지 않는 그때의 이 마음. 이 안타까움. 십년이 가도 가시지 않는 이 안타까움. 놀랐느냐구요? 네, 놀랐지요. 놀라운 일이 조금도 놀랄게 느껴지지 않는 데 놀랐지요. 이런 말이 있나요? 아니 말이야 있든 없든……

대사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공주 그 말이라니

대사 장군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공주 그럴 리가……

대사 장군께서는 여기서 뉘게 전에 공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주 나를 보셨다는 말인가요?

대사 장군께서 그 전날 산에서 주무셨다던 생각이 나십니까?

공주 나고말고요. 그래서 그날 짐승을 메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만한 꿈을 (꿈꾸듯)

대사 맞습니다. 장군이 그날 밤, 산에서 꿈을 꾸셨다더군요.

공주 꿈을? / **대사** 네

공주 그래서? / **대사** 꿈에서 공주님을 뵈었다더군요.

공주 처음 듣는군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대사 그래서 공주님을 보았을 때 대뜸 알아보았다고 하더군요.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37.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하여 과거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무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 ③ 화자의 일상적인 삶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부정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도치의 기법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아내'와 사별한 이후 시인이 느낀 고독감과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작품 안에서 화자는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집'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균열을 형상화함으로써, 예고 없이 닥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① ㉠: '조금 전까지' 있었던 '아내'가 없는 상황을 낯설어하는 '나'의 심리를 나타낸다.
- ② ㉡: '넙치지지미의 땀뻘한 냄새'는 아내와 함께 했던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을 형상화한다.
- ③ ㉢: '갑자기' 말이 없는 '아내'의 모습은 예고 없이 찾아온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 ④ ㉣: '나'가 밤을 기웃거리는 모습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일상의 균열을 극복해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⑤ ㉤: '느닷없이' '퍼붓는' 빗발은 어쩔 수 없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고독감을 고조시킨다.

39. (가)의 '메아리'와 (나)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메아리'와 '꿈' 모두 '나'와 '공주'의 그리움을 해소시킨다.
- ② '메아리'와 '꿈' 모두 '나'와 '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상징한다.
- ③ '메아리'가 '나'의 기대를 드러낸다면, '꿈'은 '공주'의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④ '메아리'가 '나'의 상실감을 유발한다면, '꿈'은 '공주'에게 기쁨을 유발한다.
- ⑤ '메아리'가 '나'의 현재 처지를 깨닫게 한다면, '꿈'은 '공주'의 과거 인연의 특별함을 부각한다.

40. (나)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온달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온달장군의 죽음 이후에도 공주는 쉽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 ③ 공주는 대사의 조언을 듣고, 어머니께 온달장군의 죽음을 말 씀드리기로 결심했다.
- ④ 온달장군은 공주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⑤ 공주는 왕자가 온달장군의 죽음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한다.

41. <보기> 중 (나)에 나타난 '대사'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 끼리 묶은 것은? [3점]

〈보 기〉

- ㄱ. 공주가 몰랐던 온달장군과의 일화를 전달함으로써 공주 를 위로하고 있다.
- ㄴ. 정치적 상황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공주에 대한 왕자의 처분을 정당화하고 있다.
- ㄷ. 평양성의 내부 사정을 언급하며 향후 거처에 대한 공주 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ㄹ. 온달장군 어머니의 반응을 고려하여 공주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ㅁ. 공주의 집착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을 지적하면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를 감상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죽음의 심상이란 죽음을 표상하는 관습적 이미지이다. 이 는 크게 원형적 상징에 근거한 원형적 이미지, 자연물의 변 화를 포착한 자연적 이미지, 죽은 이와에 관계에 기반한 비 유적 이미지로 나뉜다. 원형적 이미지는 주로 차갑고, 어둡 고, 우울하고, 쇠락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거나, 가을, 해질녘, 비, 바람, 눈 등 자연물을 통해 제시된다. 이와 달리 자연적 이미지는 낙엽, 서리, 낙화 등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 는데, 이는 가을이 지닌 원형적 상징에 바탕을 둔 자연적 상 징에 해당한다. 죽은 이와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비유적 이미 지는 대상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다. 예컨대 "화장 거울에 먼 지가 쌓였다"는 아내를 환기하는 대상을 언급하여 구체적으 로 아내의 죽음을 암시한다.

- ① ㉠: 밥상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아 내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
- ② ㉢: 비와 어둠이 조응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형상화함으로써 아내의 죽음을 환기하고 있어.

- ③ ㉡: 한 치 앞을 못 볼 만큼 세차게 내리는 빗발은 음울한 분 위기를 조성하는 원형적 이미지에 해당해.
- ④ ㉠: 새의 죽지가 부러져 날지 못하게 된 변화를 포착한 자연 적 이미지를 통해 온달 장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
- ⑤ ㉢: 바람의 원형적 상징에 어지러운 속성을 부여하여 온달 장 군의 죽음을 부정적인 상황으로서 표상하고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흙 밥 닛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할사
㉠설대인 숭늉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잃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음당정 품고 있어
뜻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뭇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분위망신(奮義忘身)*하여 죽어야 말나 여겨
자루와 주머니에 줄줄이 모아 넣고
전란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서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긴 수염 늙은 종은 노주분(奴主分)* 잊었는데
[A]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음런고
손수 농사 짓기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壘上耕翁)*을 천타 할 이
없건마는
[B]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중략)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돋우는구나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C]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지고
가지 영킨 묵은 밭도 容易(용이)케 갈런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춘경(春耕)도 거의로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江湖)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가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할사
[D]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뉘대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일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툼 이 없는 건 다만 이진가 여기노라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면

두세 이랑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E]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진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㉔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할 이 누 이시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렸노라.

* 누항(陋巷): 누추하고 좁은 곳, 즉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 분의망신(奮義忘身): 의를 위해 자기 몸을 잊음.

* 감사심(敢死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奴主分): 노비와 주인의 구분. 곧 종의 분수대로 사는 것.

* 고여춘급(告余春及):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줌.

* 경당문노(耕當問奴): 밭 갈기는 마땅히 이를 잘 아는 종에게 물어야 함.

*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壠上耕翁): 들에서 밭을 갈던 늙은이(은나라 이윤)와 밭둑 위에서 밭 갈던 늙은이(진나라 진승).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43. 윗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누항'은 화자가 거처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여기에서의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D]의 '강호 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군.
- ② [B]에서 화자는 '노주분'을 잊고 봄을 알리지 않은 중 때문에 때를 놓쳐 [E]의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상황에 이르게 되었군.
- ③ [C]에서 화자가 잠에 들지 못한 채 울적해 하며 '쟁기'를 쓸 데 없다고 여기는 것은 [B]에서 '소가 없어 밭을 갈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될 수 있겠군.
- ④ [D]에서 화자는 '춘경'을 던져두고 '풍월강산'을 누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비로소 [E]에서 '설운 뜻'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군.
- ⑤ [E]의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과 같은 태도를 통해 화자는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A]의 '장부 뜻'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군.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곤궁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화자가 자신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조를 지닌 시구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을 전내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누항사>의 화자는 손수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에게 농우(農牛)를 빌리러 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에 세상 물정을 몰랐던 신세를 자탄하다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명월청풍을 벗하며 자족하는 삶을 다짐한다. 이는 임진왜란의 발발과 대기근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진 현실에서 작자 박인로를 비롯한 사족 계층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즉, 이렇게 궁핍한 현실에서 사족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설레운 승농'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주검'이 널린 참혹했던 전란의 광경을 묘사하여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즐기는 '농가'에 화자가 '흥을 잃은' 모습을 통해, 농사로는 대기근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풍월강산'에서 절로 늙어가고 싶은 소망을 표출하여 사족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인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⑤ ㉔: '충효, 화형제, 신봉우'와 같은 유교 윤리를 지킴으로써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